

## Work Experiences of HIV/AIDS Service Providers

Hyung Won Park<sup>+</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work experiences of HIV/AIDS service providers in Korea. The in-depth survey data of 9 social workers and counselors who had worked in various agencies were analyzed by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uch as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Their work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starting career without knowing anything', 'working together while sharing emotions and faith with one another', 'working against taboo with pride'.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started working in the career without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AIDS but worked together with patients and share emotions and faith with them despite the issues of homophobia,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They also experienced their personal development and gained pride in working against social taboo.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betterment of HIV/AIDS education and promotion, the use of institutional supervision system and peer support groups, and the change in social perception.

**Key words:** HIV/AIDS, social worker, counselor, work experiences, qualitative research

###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이 1985년 처음 확인됨과 동시에 질병에 대한 공포와 동성애에 대한 낙인이 확산되었고,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2017년 현재 HIV/AIDS 내국인은 12,320명이고, 2017년 한 해 1,191명이 신규로 신고되었으며, 매년 감염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HIV 유병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이 통계는 의료기관 이용 경로를 통하여 HIV 감염을 진단받은 사례를 집계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HIV 감염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시행, 치료제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감염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HIV 감염인의 생존율과 고령화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HIV 감염인들은 만성질환 환자의 생애주기와 유사한 양상을 띄게 되었고,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증가하

<sup>+</sup> Corresponding author: Hyung Won Park, Tel. +82-2-944-5014, Fax. +82-2-980-2222, e-mail. [swhwp@iscu.ac.kr](mailto:swhwp@iscu.ac.kr)

고 있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환자 발생이 확인된 1985년부터 1994년 경까지는 ‘AIDS 환자 격리’, ‘보건기관을 통한 감염인 추적관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강제검진’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양산하면서 AIDS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고착시켰다. 이후 대국민 교육홍보 시기를 거쳐 2005년 경에는 국제적인 동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AIDS 예방사업이 도입되었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치료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9월 전면개정된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인의 보호와 지원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들을 반영하였고, 2011년 발표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에서는 AIDS를 중점과제의 하나로 포함하여 인권에 부합하는 사업목표와 계획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에는 HIV/AIDS 관련하여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외에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구세군 보건사업부, 한국가톨릭레드리본, KNP+, love4one 등의 단체에서 AIDS 상담 및 감염인 지원사업, AIDS 예방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는 의료인력 외에도 사회복지사, 상담사, 활동가 등 다양한 인력이 초기상담 및 위기상담, 교육, 심터운영, 호스피스사업, 직업프로그램, 일상생활지원, 예방캠페인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IV/AIDS 문제는 의료 및 치료적 접근 외에 예방적,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이미 AIDS라는 문제를 사회심리적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사례관리, 가족치료, 위기개입 등 사회복지 개입과정과 관련해 주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Samson & Siam, 2011, Kang, 2014 재인용).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감염인들과 일하고 있으며, AIDS로 투병하며 고립된 환자를 병원에서 만나는 경우보다는 검사기관이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곳에서 접할 기회가 많다. AIDS 관련 업무의 초기에 사회복지사들은 감염인 클라이언트

가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으며, AIDS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만 받아들였던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일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Wheeler, 2007). 의료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은 감염인들의 투약관리, 정신건강, 역량강화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제공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odriguez, *et. al.*, 2014).

AIDS는 사회 대중들 뿐 아니라 일부 의료 종사자들조차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질병이고, 많은 연구에서 의료진들의 동성애나 마약 등에 대한 부정적 정서, 상담에서의 불편함, AIDS 환자 기피 등이 보고되고 있다(Wiener, *et. al.*, 1990). 사회복지사들은 정서적 요구가 많은 클라이언트를 대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소진에 취약한데, 특히 AIDS 환자와 일하는 경우 감염경로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감염의 공포를 갖고 있으며, 질병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비밀보장과 같은 법적·윤리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Oktay, 1992). 이처럼 HIV/AIDS 문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원조하는 것 외에 질병의 특성상 갖게 되는 부정적 정서,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HIV/AIDS 원조 전문직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HIV/AIDS 관련 종사자들이 일하면서 갖는 경험은 감염인들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발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HIV/AIDS 당사자와 관련하여 HIV/AIDS 환자의 삶의 질(Shin, 2011), HIV감염인의 사회적응과정(Kang, 2013), 자조공동체 생활경험과 낙인벗기과정(Kang, *et. al.*, 2014) 등 감염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낙인, 삶의 질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다수 있다. 또한 감염인들에게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들의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간호학 영역에서는 간호사, 상담간호사, 간호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HIV/AIDS에 대한 인식, 태도연구(Han, *et. al.*, 1998), 상담간호사의 소진(Seo, *et. al.*,

2013)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의 감염인에 대한 신체적·사회적 거리감(Rhee, *et. al.*, 2013),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AIDS 감염인에 대한 인식(Rhee, 2016), 보건복지직 공무원과 일반인의 HIV/AIDS에 대한 태도와 지식 연구(Kim, *et. al.*, 2010) 등이 있으나, HIV/AIDS 관련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구체적인 업무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 비해 HIV/AIDS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 늦은 우리나라의 HIV/AIDS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경험과 실제적인 모습을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연구방법을 택하였고,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질문을 통하여 HIV/AIDS 관련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II. 선행연구 고찰

HIV/AIDS는 질병의 치료 외에 감염, 동성애나 마약 등에 대한 부정적 정서, 이와 관련된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조차 감염의 두려움(55%)을 갖고 있으며(Richardson, *et. al.*, 1987), 우리나라의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수술/입원시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사용’하거나(40.5%) ‘HIV 감염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26.4%), 혐오발언이나 차별적 태도(21.6%)를 보이는 등(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의료진의 부정적 태도는 현 시점에서도 질병의 치료 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초래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감염의 우려 외에 AIDS 환자와 일할 때의 불편함은 동성애 이슈이다. Douglas, *et. al.*(1985)의 연구에서는 10% 정도의 의료진이 “AIDS에 걸린 동성애자는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응답

하였고, 많은 연구에서 의료진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고하고 있다(Wiener, *et. al.*, 1990). 이러한 의료 종사자들의 부정적 태도는 환자와의 관계형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위배되며, 환자의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Kelly, *et. al.*, 1998).

의료 영역에 비해 HIV/AIDS 관련하여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28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Dhooper, *et. al.*(1987-88)의 연구에서는 37%의 응답자가 높은 수준의 AIDS 공포를 보였고, 30%의 응답자는 AIDS 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였고, 31% 응답자는 AIDS 환자에 대한 낮은 공감을 보여주었다. 또한 80%의 응답자가 AIDS 환자 사례를 거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Wisniewski, *et. al.*(1987)의 연구에서는 1/3정도의 사회복지사가 동성애 공포를 보일 정도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HIV/AIDS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두 HIV/AIDS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Oktay(1992)의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서 AIDS 환자와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약간 높은 정도의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적 성취감을 갖고 있었다. 개인적 성취감을 주는 요인으로는 ‘타인을 돕는다는 것’, ‘환자를 임파워링한다는 것’, ‘죽음의 과정을 돕는다는 것’,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을 갖는다는 것’, ‘어려운 영역에서 일한다는 것’, ‘환자와 가족이 용기를 갖는 것을 목격하는 것’, ‘환자를 돕기 위해 시스템과 협의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Wiener, *et. al.*(1990)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AIDS 환자와 일하는데 있어서 중간정도의 편안함을 갖고 있으며, 91%의 응답자는 AIDS 환자라는 이유로 사례담당하기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AIDS 환자에 대한 편안함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AIDS에 대한 지식, 부정적 도덕기준이 낮은 경우, 가족의 지지, 이전에 AIDS 환자나 다른 고위험환자와 일했던 경험, 동성애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성이나 마약중독자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일이고 그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거나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라는 진술 외에 “감염의 두려움보다는 아픈 환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한다는 사회복지사의 진술도 있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과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Han, *et al.*, 1998)에서 80.2%의 학생이 AIDS환자의 간호에 대해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선택권이 있다면 AIDS환자의 간호를 수락하겠다는 학생은 50.6%였다. 또한 AIDS 환자의 간호의도에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주요 요인이며, AIDS에 대한 지식이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3). HIV/AIDS 상담간호사들의 소진경험 연구(Seo, *et al.*, 2013)에서는 상담간호사들의 개인 내적 요인, 직무요인, 대인관계 요인 등으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며, 이러한 소진은 상담의 성과나 상담의 질에 지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간호사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힘’,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함’과 같은 소진경험을 토로하였다. HIV/AIDS 관련 기관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현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연구(Rhee, *et al.*, 2013)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HIV/AIDS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직 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et al.*, 2010)에서는 보건복지직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 HIV/AIDS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HIV/AIDS에 대한 지식이 연구대상자들의 태도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HIV/AIDS 영역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사회복지사들이 대체로 감염의 공포, 사회적 편견과 낙인,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AIDS 환자와 일하면서 갖게 되는 정서적 소진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AIDS 환자에 대하여 편안함을 갖고 있고, “감염의 두려움보다는 아

픈 환자에 대한 관심”(Wiener, *et al.*, 1990)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현재 HIV/AIDS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종사자 9명이다. 전형적 사례(typical case)방식 및 눈덩이표집으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경우에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근무지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었고, 이는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눈덩이표집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은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의료인은 HIV/AIDS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의료 윤리 등이 다른 전문직과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HIV/AIDS와 관련하여 인권단체, 당사자 조직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역시 연구참여자 선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같은 이슈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일하지만, 일의 방식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참여자에서는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7월부터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2017년 12월까지 실시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가 선호하는 카페나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 1명당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 정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HIV/AIDS 관련 업무의 경우 한정된 네트워크 안에서 신분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 ‘업무경험은 HIV/AIDS 관련기관에서 일하면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Gender
1	51	Male
2	38	Female
3	55	Male
4	33	Female
5	60	Female
6	57	Male
7	49	Female
8	46	Female
9	58	Female

서 경험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의 경험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소속기관의 조직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험까지 포함하기에는 범위가 넓어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업무경험에 한정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주된 연구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① HIV/AIDS 관련 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② 일하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무엇인지, ③ HIV/AIDS 관련 업무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하면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후 연구자가 전사하여 자료화하였다.

##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방법은 심층면접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한데(Berg, 2007), 비구조화된 개방적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드러나는 응답자의 다양한 관점과 반응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나아가 내면적인 의식과 태도를 다루는 연구에 강점이 있다(Weber, 1990). 무엇보다 사회적 경향이 반영된 장기간의 경험이나 과정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속성을 바탕으로 코딩-범주화를 거쳐 분석하였다(Morce & Field, 1995; Berg, 2007).

전사된 심층면접 녹취록을 참여자별로 반복하여 읽

으며, 연구주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단어와 구문을 분석단위로 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진술로 표시된 자료를 염두에 두고 전체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동일한 의미의 구문과 문장을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념과 원자료간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하였다.

## 3. 윤리적 고려 및 연구의 신뢰성

연구목적과 연구질문에 대해 설명하여 사전동의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인터뷰시 ‘연구참여동의서’를 상호 작성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어도 인터뷰과정에서 참여자가 원하지 않거나, 응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인터뷰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질병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익명처리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진술에 대하여 연구자의 가치판단이나 해석이 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보완설명이 필요하거나 불분명한 표현 등은 재질문하여 명확성을 기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분석에 반영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질문은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 경험은 어떠한가?”였다.

분석결과, ‘정보없이 시작한 일’ 등의 31개의 개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비롯한 10개의 하위범주 및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기’가 포함된 3개 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 1. 개념과 범주

#### 1) 모르고 시작한 일

연구 참여자들은 HIV/AIDS 관련 업무에 다양한 계기로 일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였다.

(1) 알 수 없는 이끌림

‘알 수 없는 이끌림’이라는 하위범주에는 ‘정보없이 시작한 일’, ‘우연히 시작한 일’, ‘본능적으로 뛰어든 일’이라는 3개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HIV/AIDS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HIV/AIDS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오히려 편견없이 일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도 있었고(참여자 2),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7). 또한 “유홍쪽의 여자들,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참여자4)는 참여자도 있었다. HIV/AIDS라는 질병을 몰랐으나 우연한 기회에 AIDS라는 영역에서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일을 시작한 참여자(참여자 9)도 있었다. HIV/AIDS 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 제도적 미비, 서비스 부족, 네트워크의 제한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일하게 된 계기를 ‘본능’이었다고 진술한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3).

“얼떨결에, 자연스럽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 세팅하는 작업부터 해서. AIDS라는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했고,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몰랐어요. 한번 감염되면 아직까지는 완치가 안되는 병이구나. 과정이나 차별이나 인식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 사업을 위해 세팅하는 일.”(참여자 7)

“AIDS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연히 시작한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참여자 9)

“간병지원하느라 다니면 서울역, 노량진, 용산역에 PL<sup>1)</sup>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지꼴을 해서. 어떡해요. 하기 시작했어요, 적십자병원, 노숙인 센터고 다 뚫어놨어요. 어떡해요. 목마른 놈이 해야지요. 할 수 밖에 없었어요. 본능적으로.”(참여자 3)

2) 울며 웃으며 함께 한 일

(1) 낯선 경험의 복잡한 심경

감염인들과 일하면서 갖게 되는 복잡한 심경은 ‘감출 수 없는 긴장’, ‘불편한 차별의 시선’,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개념화하였다. 종사자들은 HIV/AIDS에 대해 교육을 받아 이론적으로는 두렵지 않았으나, 막상 감염인을 접했을 때 긴장이 되고, 그 긴장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평범하게 해야지, 보통사람 만나듯이 해야지 했는데, 엄청 긴장하는 거 다 보였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 쪽으로 발달했어요. 민감해요.”(참여자 8)

또한 감염인들과 함께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권자 신청 등의 일을 할 때 감염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편한 차별의 시선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제가 같이 가서 저는 이리이러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 분을 도와주기 위해 같이 왔다 하면 호의적으로 도와주는데 이 분들 혼자만 가면 되게 무시하고.”(참여자 4)

“제가 같이 가서 신청을 하면 저를 보고 얘기를 해요. 뭔가 꺾꺾고 경계하는 듯한. 약간 얼어서 저만 보고.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참여자 4)

감염인들에게 있어서 노출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들과 일하는 종사자들 역시 그들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마음 편히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서운한 감정을 갖기도 하였다.

“저희도 노출 안되려고 만날 때도 조심하고, 밖에서 지나가도 만나면 인사도 안 하거든요. 제

1) PLWHA(People Living With HIV/AIDS)를 간략히 PL이라고 통칭함

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먼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교육 받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병원같은 데서. 예전에 서울역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다 횡단보도에서 마주쳤는데, 오래전부터 만나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 분들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눈을 마주보고 가도 모른 척 하고. 인간적인 서운함이 들죠.” (참여자 4)

## (2) 마음 다잡기

참여자들은 감염인들과 일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럴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다잡는 노력을 하였고, 그것을 ‘스스로 다독이기’, ‘기도로 이겨내기’, ‘무뎀지려고 노력하기’, ‘생각을 확장하기’, ‘AIDS보다는 사람을 보기’로 개념화하였다.

긴장을 풀기 위해 자신을 다독이기도 하고 기도를 하거나 종교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참여자 4)

“긴장 안 하려고 신자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참여자 2)

“(종교가)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는 도움이 되죠.” (참여자 5)

“신앙의 힘이 없었다면 박살났어요.” (참여자 6)

또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마음속으로 삭이고, 반복되는 상황에 무뎀지려고도 하였다.

“헤쳐 나가기보다 울고 속상해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흘러 무뎀지고. 이기려고 뭔가를 했던 것은 없는 거 같아요. 혼자 울고 속상해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잖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텐데, 내가 무뎀져야겠다.” (참여자 7)

한편으로는 AIDS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힘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였다. 문란한 성생활, 부도덕함 등 감염인들이 받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감염인들과 일하는 참여자들 역시 내적 갈등을 갖고 있었으나,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파경로가 성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감염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였다.

“전파경로를 보면, 나라마다 경로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유독 성적인 게 많고, 미국은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중국은 매혈로 한 동네가 60~70%가 감염되고, 원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죠. 전파경로가 성관계 뿐이 아니라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 갈등은 계속 있었던 거 같아요. 가치와 안 맞는 부분 생각을 자꾸 확장시키려고 노력했죠.” (참여자 8)

참여자들은 AIDS라는 질병과 그 질병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낙인과 차별, 편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왜 감염되었는지를 알았다면 어쩌면 못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AIDS라는 질병을 알기 전에 사람을 먼저 봤던 거 같아요. AIDS에 걸린 사람은 어쩔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론적인 거 없이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 모르겠어요.” (참여자 7)

## (3) 또 다른 삶을 이해하기

HIV/AIDS 관련 일을 하다보면 종사자들은 질병 관련된 내용 외에 동성애를 접하게 되고, 동성애 이슈와 관련한 문화충격(참여자 4)을 경험하며, 사회의 주류 가치 및 자신의 가치와의 충돌에서 동성애를 이해하는 격렬한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문화충격’, ‘그

네들의 삶을 이해하기’, ‘아픈 손가락을 품기’로 개념화 하였다.

“어려웠던 거는 동성애가 많으니까. 동성애에 대해 이해를 못 한 적이 있어요.” (참여자 6)

“첫 인상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 행색이 많으니까 혼란스러웠던 거 같아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5~60대 남자라고 하면 목소리도 낮고 옷도 요즘 등산복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 분들은 목소리도 높고 욕도 섞어가면서 이년아 그러고. 그런 게 충격이죠. 문화충격. 옷도 딱 붙는 옷 많이 입으시고 눈썹 문신하신 분, 화장하신 분, 그런데서 오는 충격 때문에 조금 무서웠던. 제가 못 보던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단체로 있다 보니까.” (참여자 4)

참여자들은 감염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네들의 그런 삶도 사람사는 데지 뭐.” (참여자 5)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감염인들을 더욱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도 사랑이고 인간으로서 똑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다.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사랑이다. 우리가 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 말에 공감에 갔고, 감정만큼은 사랑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참여자 5)

또한 종교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였는데, 하느님의 버릴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해를 하니 감염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하느님의 아픈 손가락이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니까. 자식도 그렇잖아요. 버릴 수 없는

자식이라는거. 배타적이기만 하면 안되겠다. 나쁘게 빠진 자식이라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참여자 5)

#### (4) 함께 하기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감염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며 사회복지 및 상담현장에서의 전형적인 실천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이러한 일의 방식을 ‘티 만나게 다가가기’, ‘일상을 같이 하기’, ‘배우려고 노력함’, ‘신뢰를 얻음’으로 개념화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친구같은 편안함으로, 티 만나게 다가려고 노력하였다.

“의식적으로도 티 만나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다가려고 하는게 있어요.” (참여자 2)

“근데 이 분들하고는 뭘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친구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 클라이언트와 워커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같은 거 같아요.” (참여자 7)

감염인들 중에는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참여자들은 사비로 식사를 같이 하고(참여자 3, 7), 물질적 지원을 하고(참여자 5), 밤에 클럽도 같이 가면서(참여자 7) 감염인들과 일상을 같이 하면서 “일이라는 생각없이”(참여자 7) 일을 하였다.

“감염인들 만나면 제가 꼭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혼자 계시고 제대로 된 끼니를 못 챙기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오실 때도 점심시간 임박해서 오라고 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게. 사비로 해서. 만약 사업비에서 그렇게 하면 사업비 안 줄거예요. 지금도 사비로.” (참여자 7)

“월급타서 우리 얘기들 밥사주는 거 그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지요. 복잡미묘하게.”

(참여자 3)

“내 생활에까지 침범하는 듯한 느낌.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니라. 심지어 돈 빌려달라는 경우까지.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소소하게 해 주고.” (참여자 5)

“통화를 하다 보면 밤도 새고. 밤문화를 좋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밤에 클럽도 다니고, 일하면서도 일이라는 생각없이” (참여자 7)

또한 참여자2는 감염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자신이 배워야 할 점으로 생각하며 배우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졌다.

“그분들은 솔직히 제가 대접해야 하는 선생님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잔소리하고 투정하는 거는 배워야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흡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 분들은 대상 자기 때문에 가르치려 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 분들하고는 어려움이 없어요. 재미있어요. 삼촌처럼.”(참여자 2)

감염인들과 일상을 같이 하며 친구처럼(참여자 7), 삼촌처럼(참여자 2) 지내다 신뢰를 얻었을 때는 어느 관계에서보다 값진 기쁨을 느꼈다(참여자 7).

“드디어 해냈다.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는구나.” (참여자 7)

##### (5) 존중하며 일하기

참여자들은 감염인들과 일하며 그들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상황·환경에 맞게 일의 방식을 변화시켜가며 일을 하였고, 이를 ‘그들의 강점 발견’, ‘그들에게 맞춰 일하기’로 개념화하였다.

참여자들은 감염인들이 감성, 민감성 등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고, 질병 진단 이전부터 잠재력을 갖고 있었

으나, 진단 이후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그들의 강점과 잠재력이 묻혀 버렸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강점을 보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강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얼마 전에 의료기관에서 감염인들 대상으로 심리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훑어봤는데 은근히 긍정적이신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받아들여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의외의 내용이어서” (참여자 2)

“그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정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런 거 때문에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렵지만. 그 분들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게 많아요.” (참여자 6)

“예민함, 민감함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 같아요. 동성애라서 그런지 감염인이라 갖고 있는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높이 사는 부분이에요. 사물을 보거나 할 때 시각이 일반인하고 다른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참여자 8)

“기존에 그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있었던 거 같아요. 감염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상적인 생활일 수 있는데 감염되면서 감염인으로 낙인 찍히면서 그런 일상생활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 된 거죠. 어느 순간 질병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생활에서도 안정을 찾고, 이 활동을 통해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안에서 예전에 것들이 임파워되서 다시 나간 거 같아요.” (참여자 7)

“열심히 사는 분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걸 계기로. 지금 5~60대 되신 분인데, 그 당시 이걸 계기로 삶이 바뀌었다 하며 더 열심히 사는 분도 계세요. 이게 사회적으로 별로 좋은 시선을 갖지 않지만 개인으로는 변화가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참여자 8)

또한 참여자들은 감염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일의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사회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고 벽을 쌓고 살던 사람”(참여자 5)들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담방법이나 상담회기를 적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상담방법과 획일적인 상담회기적용을 바꾸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헛갈렸었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조금 나중 문제다.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쏟아낸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 단계인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이 커요. 내가 상담자로서 올바른 건지 어떤 때는 헛갈릴 때도 있는데.” (참여자 5)

“침에는 회기를 정해놓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회기로 짰었어요. 근데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안되겠다 본인만 그만 오겠다고 할 때까지 하면 안되겠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벽을 쌓고 살던 사람이 상담사라고 5번, 10번에 문을 열겠느냐, 제가 하면서 바뀌어요.” (참여자 5)

또한 AIDS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액션보다는 문서”(참여자 3)로 차별에 대항하는 방식을 취하여 일하였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듬는 편이에요. 중립을 지키면서.” (참여자 3)

“의료기관에서 있는 의료차별은 말로 해서 안되요. 그 때는 문서가 최고더라고요. 문서로 주고 받고. 얼굴을 보고 말하면 문제가 커져요. 감정이. 사실, 진술서를 쪽 써서 가져가서 정리해서 사실확인을 받는거죠. 맞는 거, 틀린 거 보고, 맞는 거는 오케이하고 틀린 것은 사과받아내야죠.

시정사항까지 받아내야죠. 나중에 시정되는지 확인하고.” (참여자 3)

“운동하는 쪽하고 충돌이 있었던게, 그 쪽은 나가서 싸우자 그러는데 나는 그게 싫었거든요. 10년 넘게 같이 일하다 보니 문서쪽으로 기울더라고요. 품위있게 변한 긍정적인 면이죠. 액션으로 할 일도 있지만” (참여자 3)

### 3)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기

참여자들은 HIV/AIDS 영역에서 일하면서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고, 일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여전히 이 일에 소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일에서 오는 기쁨’, ‘나를 성장시킨 이 일’, ‘일을 하게끔 이끄는 것’, ‘일에 대한 소명’이라는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 (1) 일에서 오는 기쁨

참여자들은 작게는 프로그램에서의 성취감(참여자 2)에서부터 감염인들의 변화된 삶(참여자 3, 4)을 보면서 힘과 활력을 얻는다(참여자 3, 7).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일을 하며 자리잡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참여자 5). 또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뚝 서는”(참여자 3) 사람으로 인해 또 힘을 얻고 일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성취감’, ‘활력을 얻음’, ‘우뚝 선 사람을 보며 힘을 얻기’로 개념화하였다.

“즐거워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니까. 준비할 때는 신경쓰이는데, 마무리 잘 된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요. 신경은 쓰이는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해봤어요. 이번엔 뭘 하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신경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있구나 하고 배우는 계기가 돼서 재미있어요. 마무리되었을 때 스스로 뿌듯함. 성취감 이렇게 큰 거 같아요.”(참여자 2)

“쉽터같은데 가서 건강도 좋아지고 수급비로 나름대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 목표는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거 보면 뿌듯하고 보

람도 있고.” (참여자 4)

“에너지를 뺏기기보다 시너지가 돼서 강해지고 활력이 되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못 놓느냐 하는데 저는 이 일이 딱 맞고 좋았어요. 사람때문인 거 같아요.” (참여자 7)

“내가 조금은 내공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겪으면 그렇지도 않은데 어려워하고 괜찮냐 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뿌듯함. 여기를 견뎌내고 있다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가져요. 더 한 것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느낌. 가끔은 그런 느낌도 가져요.” (참여자 5)

“그런 것들만 있으면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다가 중간에 긍정적으로 우뚝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힘이 나죠. 일하고 움직이고.” (참여자 3)

## (2) 나를 성장시킨 이 일

참여자들은 “이 일 때문인지 사회복지라는 것을 시작해서인지 모르겠지만”(참여자 4) 나와 주변을 돌아보고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됨으로써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을 ‘내 안을 들여다 봄’, ‘주변을 돌아봄’, ‘잘 모르는 세계를 알게 됨’으로 개념화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서 자신의 장점,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쪽 일을 하면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고 할까? 겉으로 보이는 데 신경을 썼었는데, 이 일을 해서인지, 사회복지라는 것을 시작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더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4)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뭘해도 아깝지 않구나를 알게 되었죠.” (참여자 7)

“제 안에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허물없이 편견 없이 보듬을 수 있는 성격이 있다는 걸 발견한게 긍정적이고요.” (참여자 7)

“이런 일을 하면서부터는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됐다 그러나?” (참여자 2)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감염인들에 대해 연민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끼며,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기도 하였다.

“저한테는 감사한 분들인데. 불쌍하게 여기는 거 자체가 죄송하고. 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아요. 부모님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고. 힘든 사람 없나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죠.” (참여자 2)

감염인들과 일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았다.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고, 고정된 사고를 벗어난 것이 색다르고 소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다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잘 모르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특이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여자 4)

“그 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좋았던 거는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일반적인 그런 경험보다는 특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좋았던 거 같아요. 한 쪽으로 고정된 사고안에서가 아니라 색다른 거 이런 것도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거를. 내 안에서 참 소중한 거죠. (참여자 6)

“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갔다 온 거 같은. 고정된 사고안에서 행해진 것이 다른 것 안에

서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거. 상상도 못하던 것을. 일반적인 상식안에서는 안되잖아요. 같이 대화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것을 봤다 하는.” (참여자 6)

(3) 이 일을 하게끔 이끄는 것

감염인들과의 일은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오기와 같은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더 이 일에 열중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나를 단단하게 하는 이 일’, ‘물꼬를 트는 작업’으로 개념화하였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경험이 풍부한 참여자 5는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도 많이 봐왔는데, “그걸 못하랴하는 마음”도 있었고, 참여자 9는 다른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왔기 때문에 죽음도 많이 봤는데 그걸 못하랴 하는 마음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참여자 5)

“하고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왜 AIDS냐, 혹시 네가 AIDS냐 하고 위아래로 살펴봐요. 그런 것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를 내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참여자 9)

또한 일 세팅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AIDS 관련 일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기고 이 일에 있어서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감염인들이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의료적 지원 뿐 아니라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게 목표가 된 거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 감염인들을 만나야 한다. 찾아야 한다. 어떤 식으로 만나지? 이 일을 해내기 위해 그게 더 컸던 거 같아요.” (참여자 7)

(4) 일에 대한 소명

참여자들은 AIDS 관련 일에 대해 “욕심인지 고집인지”(참여자 1) 모르겠고, “건방진 오지랴”(참여자 3)일 수도 있겠지만 남들은 꺼리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필요한’ 일(참여자 5)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남들은 힘들어하지만 나는 견딜 수 있는 정도”(참여자 7)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의 불편한 시선과 편견 때문에 “간판도 없이”(참여자 4) 일하기보다는 “든든한 기둥아래서”(참여자 4) 당당히 일하고픈 소박한 소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명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필요하니까 하는 일’,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는 일’, ‘당당하게 일하고픈 소망’으로 개념화하였다.

참여자들은 AIDS 관련 일을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꺼려지는 일이라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아직까지 욕심인지 고집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남들이 보편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 꺼리는 부분. 그게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1)

“제가 도망가 버리면 환자가 더 고통을 받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방진 오지랴인데.” (참여자 3)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나 없으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도 계속 도망 못하고 붙어있는 이유는 잔 미련도 많아서.” (참여자 3)

“계속 이쪽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언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겠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참여자 4)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포기했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필요하니까 한다 그 말이 맞아요.” (참여자 5)

참여자들은 수년간 AIDS 관련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으나, 그 힘들이가 견딜만한 정도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염인들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일한다고 하였다.

“뭣도 모르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그 때마다 이 일 하기를 잘했어. 생각이 들죠. (중략) 전화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고맙다는 말을 듣고자 하는 거는 아닌데, 그들로 인해 나도 사는데 힘이 되는 거죠. 즐겁고 신나고 뿌듯한 거도 있고. 그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거죠.” (참여자 3)

“제가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인가 봐요. 제가 견딜 수 있는 범위인가 봐요. 이걸 하면서는 그 힘든 걸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즐거운거 같아요.” (참여자 7)

“뭘이 있겠죠. 거창하지만 사명? 소명? 남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나는 안 힘들니까 내가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사명을 갖고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디 가서 뭣뭣하게 말할 수 없는”(참여자 1) 답답함을 토로하였고, 사회인식이 바뀌어서 “간판같은 거 달고 당당하게”(참여자 4)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극복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뭣뭣하게 말할 수 없다는거. 이런 데서 일한다 하면 뭔가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텐데.” (참여자 1)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열악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참여자 1)

“저희도 노출 안되려고 서울역에 있을 때는 간판이 없었거든요, 간판이 없는 형태로 있었고, 지금도 상가안에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사회복지사무실이다 정도. 뭔가 든든한 기둥아래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크게 표현하면 사회인식이 조금만 바뀌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란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와줘야할 부분이 있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간판같은 거 달고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고 늘 조심스럽게, 명함에도 명칭이 없거든요. 이 분을 데리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감염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고 그런 게 있어서. 편안하게는 아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거.” (참여자 4)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종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업무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HIV/AIDS 업무 종사자들은 감염인들과 울며 웃으며 일상을 같이 하며 일하고 있고, 감염인들에 대한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HIV/AIDS 업무 종사자들은 AIDS라는 질병 특성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정보없이 일을 시작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AIDS 관련 국가사업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 일을 시작한 종사자들은 감염인들을 만나고 사업을 세팅하면서 미래에는 의료적 지원 뿐 아니라 감염인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물꼬를 트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AIDS라는 질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질병의 감염경로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감염인들을 만날 때 긴장감을 감출 수 없어 당혹스럽기도 하였고, 노출을 꺼리는 감염인들의 특성 때문에 우연히 만나도 모르는 척 지나치는 행동에 인간적인 서운함도 느꼈고, 불편한 차별의

시선을 느끼는 등 감염인들과의 일은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의 경험이었다. 일을 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는 스스로 다독이고, 무너지려고 노력하며, 기도도 하고, AIDS라는 질병에 대한 생각을 넓히려는 노력도 하였다. 무엇보다 AIDS라는 질병보다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HIV/AIDS 관련 일을 하면서 종사자들은 동성애 이슈를 접하면서 문화충격을 경험하고, 사회의 주류 가치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동성애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하며 또 다른 삶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종사자들의 업무방식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이나 상담과는 다른 방식이었는데,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감염인들과 최대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 방식이었다.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기, 클럽이나 여행을 같이 가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기, 물질적인 지원 해주기 등의 방식으로 일상을 같이 함으로써 감염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아닌 친구나 삼촌같은 마음으로 감염인들과 지내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졌다.

또한 종사자들은 감염인들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감염인으로 낙인찍히면서 감염인으로서 살아가다 지원을 통해 예전의 것들이 임파워되서 나가는”(참여자 7) 분들을 보며 일의 의미를 더욱 내재화하였다. 감염인들 상담을 할 때는 일반 상담과 달리 이론이나 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벽을 쌓고 살던 사람”(참여자 5)들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시간의 상담을 하는 등 감염인 중심의 상담을 하였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사항을 확인하는 등 감염인들에 대한 권리옹호 활동도 최대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HIV/AIDS 영역에서 일하면서 종사자들은 작은 프로그램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며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힘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일하고 있다. 큰 성과가 아니더라도 한 명이라

도 “긍정적으로 우뚝 선다면”(참여자 3) 그를 통해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영역의 일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심성, 능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감염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자신과 가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잘 모르는 세계를 다녀온 것 같은”(참여자 6) 경험들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고 진술하였다.

HIV/AIDS 관련 일을 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에 오히려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이 일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참여자 3)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일”(참여자 5)이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는 일”(참여자 7)로서 참여자들은 일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간판도 없이”(참여자 4) 일하기보다는, “편안하게는 아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참여자 4)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HIV/AIDS 업무 종사자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AIDS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없이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고, 질병관리본부나 소속기관의 교육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양성과정에서부터 HIV/AIDS에 대한 실천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HIV/AIDS는 건강, 심리사회적, 사회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인권 및 윤리적 측면 등 상당히 많은 이슈를 담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직 양성과정에서부터 이슈들을 고민하고 접근해 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회복지학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는 외부강사초빙, 문헌연구, 현장방문 등을 통해 HIV/AIDS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HIV/AIDS만을 연구하는 과목도 있다(Rowan, et. al., 2011). HIV/AIDS 환자에 대하여는 초기 위기 개입을 비롯하여 퇴원상담, 지역사회적용 및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건강, 사례관리, 옹호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사 및

석사과정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전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AIDS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없이 관련 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에게 AIDS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 군부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AIDS 예방교육 및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집단 중심의 일방적 교육형태가 많아 교육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Kim, *et. al.*, 2010). 2015년 질병관리본부의 ‘AIDS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에서 36.8%의 응답자가 AIDS는 ‘죽음’, ‘불치병’과 같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연상하고 있고, 26.1%는 성병, 성매매, 동성애자 등 특정 집단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이러한 거부감, 스테레오 타입의 시각은 AIDS 감염인에 대한 거부감과 낙인,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 조사에서 AIDS 감염인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0.6%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AIDS 감염인을 현실에서 마주친 경험이 없음에도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학습된 낙인이 내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 또한 많은 연구에서 감염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AIDS에 대한 지식을 꼽고 있다(Wiener, *et. al.*, 1990; Kim, *et. al.*, 2010; Yang, 2013; Rhee, *et. al.*, 2013). HIV/AIDS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AIDS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된다면 종사자들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과 정확한 지식을 통하여 종사자들이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관리와 같이 정서적인 부분

을 다루주지 않을 경우 종사자들의 소진이 증가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일을 하면서 가치관의 충돌, 정서적 어려움, 딜레마 등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마음속으로 삭이거나 종교적으로 해결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HIV/AIDS 관련 기관들이 대체로 소규모이고, 본부에서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수퍼비전을 받기 어려운 구조와 상황인 경우가 많아서 인지 기관내 수퍼비전 체계나 지지적 관계를 통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는 담지 못하였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여러 참여자들이 동료나 상관으로부터 지지나 조언을 받은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할 만큼 기관내 적절한 교육 및 수퍼비전 체계는 중요하다. AIDS 환자는 질병의 치료 및 질병에 대한 적응문제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차별, 낙인, 사회적 배제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진을 기관내에서 잘 다루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Wiener, *et. al.*(1990)의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은 AIDS 환자와 일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정서적 긴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교육훈련과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하면서 갖는 감정, 걱정, 두려움 등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관내 정규적인 수퍼비전 체계와 다양한 방식의 지지집단, 동료 지지집단 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감염인들과 일하면서 전형적인 업무방식을 탈피하여 그들과 일상을 같이 하며, 그들에게 맞춰서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조되던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방식이며,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나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아니라 일상을 같이 하며 그들에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강점을 찾고 그들에게 맞춰 일하는 방식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을 실천

하는 것으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있는 실천현장보다 사무실에서의 문서작업에 치중하게 되는 현재의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실천사례가 사례연구나 특강 등을 통해 확산된다면 HIV/AIDS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기쁨을 얻고 성장하며 소명을 갖고 HIV/AIDS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아우르는 큰 범주는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기’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AIDS 관련 업무를 하는 상담간호사들의 소진(Seo, *et. al.*, 2013), 병원 사회복지사들의 소진(Oktay, 1992)등을 주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주된 업무경험은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는 HIV/AIDS 업무 경험에 소진되는 일만은 아니며, 개인적인 성취와 보람,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AIDS 관련 일은 인간 존재, 삶과 관계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련 일을 하는 개개인들에게 중요한 보상을 주며(Shernoff, 1990), 여기서 오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성취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Oktay, 1992). HIV/AIDS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성취를 돌아보고 자아인식(self awareness)의 기회를 갖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HIV/AIDS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경험에서 개인적 성취감과 성장만을 강조하면서 이 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누군가는 해야 할 필요한 일이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한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인식이 바뀌어서 든든한 기둥아래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개인적 성취감을 넘어 AIDS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HIV/AIDS 영역에서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들은 감염인과 환자에 대한 직접서비스 외에 옹호, 자원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아웃리치, 사례관리, 정책제안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 역할을 위해 사회인식과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HIV/AIDS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업무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의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HIV/AIDS 영역에서 특별히 갖게 되는 업무상의 딜레마나 서비스 전달의 어려움과 한계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erg, Bruce. L. 200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Allyn and Bacon.
- Dhooper, S. S., D. D. Royse, and T. V. Tran. 1987-88. Social Work Practitioner's Attitudes toward AIDS Victims.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2(1): 108-123.
- Douglas, C. J., C. M. Kalman, and T. P. Kalman. 1985. Homophobia among Physicians and Nurses: An Empirical Study. *Hospital Community Psychiatry*. 36(12): 1309-1311.
- Han, Young Ran and Kwang Ok Lee. 1998. A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o Patient with HIV/AID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2(2): 201-220.
- Jaoko, J. 2014.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s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entucky. *Journal of Sociological Research*. 5(2): 56-62.
- Kang, Sun Kyung and Keun Moo Lee. 2014. A Grounded Theory Study of PL(People Living with HIV)'S Experiences on Self Help Communal Living and Eliminating Stigma.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4): 174-203.
- Kang, Sun Kyung.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f PL(People Living with HIV)'S Experiences on Adaptation Process. *GRI Review*. 16(2): 177-202.
- Kelly, J. A., J. S. Lawrence, H. V. Hood, S. Smith, and D. J. Cook. 1998. Nurses' Attitudes toward AID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19(2): 78-83.
- Kim, Hwa Sun, Eun Jeung Choi, and Jeoung Nam Yang. 2010.

-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HIV/AIDS between Health Care Officers and Adults from the General Public in G. City S. Korea. *Health and Social Science*. 28: 33-60.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 *HIV/AIDS Annual Report, 2017*.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 Morse, Janice M. & Field Peggy Anne. 1995.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Nelson Thorne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Infected (HIV/AIDS) Healthcare Discrimination Survey*.
- Oktaý, J. S. 1992. Burnout in Hospital Social Workers Who Work with AIDS Patients. *Social Work*. 37(5): 432-439.
- Rhee, Young Sun and In Jeong Lee. 2013. Social Worker's Physical · Social Distance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30(5): 177-188.
- Rhee, Young Sun. 2016.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Knowledge,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 *Journal of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338-344.
- Richardson, J. L., T. Lochner, K. McGuigan, and A. M. Levine. 1987. Physician Attitudes and Experience Regarding the Care of Patients with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IDS) and Related Disorders(ARC). *Medical Care*. 25(8): 675-685.
- Rodriguez, E. and O. McDowell. Social Workers' Perception on HIV/AIDS and the Effects on Their Service Delivery. *CSUSB Scholar Work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 Rowan, D. and J. Shears. 2011. HIV/AIDS Course Content in CSWE-Accredited Social Work Programs: A Survey of Current Curricular Practices.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31: 119-130.
- Samson, A. and H. Siam. 2011. Living and Working with HIV/AIDS: A Lifelong Process of Adaptation(in *HIV-Infection*, edited by Barros, E. In Tech Europe). 243-254.
- Seo, Myoung Hee, Seok Hee Jeong, Myung Ha Lee, and Hyung Kyung Kim. 2013. Burnout Experience of HIV Counseli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4): 544-554.
- Sherhoff, M. 1990. Why Every Social Worker Should be Challenged by AIDS. *Social Work*. 35: 5-8.
- Shin, Seung Bae. A Study on Health related Quality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4): 424-453.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Wheeler. 2007. HIV and AIDS Today: Where is Social Work Going? *Health and Social Work*. 32(2): 155-157.
- Wiener, L. S. and K. Siegel. 1990. Social Workers' Comfort in Providing Services to AIDS. *Social Work*. January. 18-25.
- Wisniewski, J. J. and B. J. Toomey. 1987. Are Social Workers homophobic? *Social Work*. 32: 454-455.
- Yang, Seung Ae. 2013. Factors Affecting the Nursing Intention of Nurses for AIDS Pati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673-683.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선경, 이근무. 2014. HIV보유자들의 자조공동체 생활경험과 낙인벗기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4): 174-203.
- 강선경. 2014. HIV 감염인들의 사회적응과정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GRI 연구논총*. 16(2): 177-202.
- 국가인권위원회. 2016.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 김화선, 최은정, 양정남. 2010. 일도시의 보건복지직 공무원과 일반인의 HIV/AIDS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관한 연구: G광역시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8: 33-60.
- 서명희, 정석희, 이명하, 김현경. 2013. HIV감염인 상담간호사의 소진경험. *간호행정학회지*. 19(4): 544-554.
- 신승배.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1(4): 424-453.
- 양승애. 2013. AIDS 환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1(12): 673-683.
- 이영선, 이인정. 2013.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신체적 · 사회적 거리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5): 177-188.
- 이영선. 2016. 사회복지학 및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AIDS 감염인에 대한 인식, 지식, 편견 및 사회적 거리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10): 338-344.
- 질병관리본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편). 2015. AIDS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 *학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

과보고서.  
질병관리본부. 2018. 2017 HIV/AIDS 신고현황. 청주: 질병관리  
본부.  
한영란, 이광옥. 1998. 간호과 학생의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2(2):  
201-220.

---

Received: Dec. 10, 2018 / Revised: Feb. 11, 2019 / Accepted: Feb. 18, 2019

## HIV/AIDS 관련기관 종사자의 업무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연구질문을 통하여 종사자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HIV/AIDS 업무 종사자의 업무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HIV/AIDS 관련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9명에게 심층면접을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업무 경험은 HIV/AIDS 관련기관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의 경험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르고 시작한 일’, ‘울며 웃으며 함께 하는 일’,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기’ 등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AIDS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질병의 특성외에도 동성애, 차별과 낙인의 이슈로 인해 감염인들과 울며 웃으며 함께 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고, 사회의 터부에 맞서 당당히 일하는 소명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IV/AIDS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개선, 기관의 수퍼비전 체계 및 동료지지집단의 활용, 사회인식의 변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HIV/AIDS, 사회복지사, 상담사, 업무경험, 질적연구

---

Profiles **Hyung Won Park** : She received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04.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ul Cyber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05.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is child and family welfare, child abuse and family violence, crisis intervention. She has published 25 articles in journals and 5 books, including co-author(swhwp@iscu.ac.kr).